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025년
5/1 노동절 특별호

발행인 : 권현구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5/1 노동절 모든 조합원 함께 합시다!

- 대전 : 5/1(목) 11:00, 대전시청 남문
- 충북 : 5/1(목) 14:00, 충북도청

드디어 윤석열 파면!

4개월의 불법계엄-내란이 막을 내렸다.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했던 정권의 끝은 결국 파면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으로 시작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상대로 시작했던 노조탄압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회계공시로 이어져 민주노조 전체를 겨냥했다.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노동자, 시민의 저항에 막혔고, 응원봉 불빛으로 가득찬 연대의 광장은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내란을 넘어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내란은 일단락됐지만, 우리의 투쟁은 다시 시작이다.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고 내란을 넘어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해온 날이다. 올해 노동절은 내란세력 청산과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투쟁의 시작이다. 노조법 개정, 회계공시 폐기 등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이 시급하다.

노동절은 그냥 유급휴일이 아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만들어온 날이다.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모두가 함께 노동절 투쟁에 나서자.

<세계노동절(May Day)의 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강경하게 진압했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8시간 노동제 쟁취와 경찰의 유혈진압 규탄 투쟁이 더욱 대규모로 벌어졌다. 정부는 이 투쟁을 폭동으로 둔갑시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1889년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다. 1890년 5월 1일을 기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국제적인 노동절 투쟁이 벌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1923년

한국 최초의 노동절 행사

1923년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총연맹'이 개최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

1946년

해방, 전평 깃발 아래 열린 노동절

1945년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다.

1957년

날짜도 이름도 빼앗긴 노동절

1957년 이승만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어용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 결성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 날짜 변경

1970년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 로 바뀌고!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 잘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근로자의 날 산업역군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모범 근로자]를 뽑아 상을 주었다. 단결과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에 들러리 서는 굴욕적인 "근로자"가 된 것이다.

1989년

다시 되찾은 메이데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이 힘으로 1989년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 굴욕에 찬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5.1절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했다.

1989년 삼엄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의 5천여 노동자와 청년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제 10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2025년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불법계엄-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그러나 투쟁은 끝이 아니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2025년 노동절은 노동중심 민주주의 쟁취 투쟁의 시작이다.